구로오늘신문

판촉물 특판
02)2068-2511
010-9035-5819
현수막·트로피·타올

극동칼라
02 -855-1484
취업사진 여권 증명사진
가족사진 복원사진
디카 핸드폰사진 즉시가능!

제855호〔주간〕 〈1994년 10월 5일 창간〉 2020년 12월 11일(금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urotoday 문의 02-830-0905

구로구 부지, 정부 사업비 일부, SH는 공사 … 3기관 합작 첫 상생 모델

전국 최초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준공

옛 오류1동 주민센터 부지 지하 4층, 지상 18층 건립

2~5층 공공시설, 6~18층 행복주택 180호

전국 최초의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큰 주목을 받은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구로구, 정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협력해 추진한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노후화된 청사를 공공시설, 주민편의시설, 행복주택을 함께 갖춘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구로구가 주민센터 부지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며, SH공사는 건물을 지어 주민센터와 공공시설을 구로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마련됐다.

구로구는 1981년 지어져 노후화된 옛 오류1동주민센터 청사 재건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해법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SH공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2018년 2월 착공에 들어갔고 3년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달 마침내 준공에 이르렀다.

복합화 건물은 경인로27길 7 일대에 연면적 1만327㎡,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 1~4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5층은 주민센터와 공공시설, 지상 6~18층은 행복주택 180호가 조성됐다. 구로구가 주민센터와 공공시설을, SH공사가 근린생활시설과 행복주택을 관리·운영한다.

현재 임시청사에서 운영 중인 오류1동주민센터는 이달 중 새 건물 2층으로 이전한다. 〈채홍길 기자〉

〈2면으로 계속〉

전국 최초의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큰 주목을 받은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구로구와 정부, SH공사가 협력해 노후화된 청사를 공공시설, 주민편의시설, 행복주택을 함께 갖춘 복합시설로 재탄생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연말까지 3주간…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음식점·상점·마트 9시, 결혼식·장례식 50명 이내

정부 "코로나19 백신 4천400만명분 확보"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8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됐다.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부터 연말까지 3주간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기존 5종의 유흥시설 외에 노래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추가로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30% 감축 운행한다.

또 음식점과 술집, 커피숍 등 일반관리시설은 기존대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면서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의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은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내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66개소에 청소년시설 114개소, 공공체육시설 1114개소 등 공공이용시설은 시간에 관계없이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직장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백신 4천400만명분 내년 초 도입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4천400만명분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선구매에 합의한 제약사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존슨앤존슨-얀센·모더나 등 4개사다.

백신 4천400만명분은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백신은 내년 초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실제 접종은 노인·의료인 등 우선 대상자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권 기자〉

Daum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구로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표평가 1등

인구 20~50만, 외국인주민 10~15% 상호문화도시 중 '최고'

90개 모든 항목 고르게 호평

구로구가 '상호문화도시'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지표항목 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다.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데 이어 지표 평가 결과에서도 최고 도시로 인정받았다.

상호문화도시 평가 지표는 상호문화 지능 및 역량, 언어 지원, 언론·홍보, 교육, 차별방지, 참여, 상호작용, 공약 등 17개 항목 90문항이다.

구로구는 평가 지표 평균 87점으로 인구 20~50만, 외국인주민 인구 10~15%인 상호문화도시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획득했으며 특히 거주지역, 비즈니스·노동시장, 문화·사회생활, 언론·홍보, 리더십·시민권, 차별방지, 상호작용 등 7개 항목에서는 만점을 거머쥐었다.

구로구는 그동안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다문화 소식지 발간,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 민·관·학 협력체계 다가치다누리거버넌스 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다문화 서포터즈단 운영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2018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전담부서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설했으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를 4년 간(2016~2020년) 맡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다문화정책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 2020년 다문화정책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럽평의회 이바나 대표는 "신규 상호문화도시가 이처럼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며 "수준 높은 정책과 혁신적인 접근법, 뛰어난 아이디어가 우수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주민들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도시를 의미한다.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이 2008년 시작한 도시·설계 운영프로그램으로 현재 전 세계 141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김유권 기자〉

전국 최초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준공

〈1면에서 계속〉

이와 함께 3층에는 자치회관, 주민휴게실, 경로당, 4층에는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조리실, 5층에는 작은도서관,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이로써 구로구는 큰 예산이 드는 공공청사 신축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해결하고 공공시설과 주민편의시설도 확충하게 됐다.

SH공사 역시 이번 사업으로 막대한 도심 내 토지매입비를 절감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을 위해 조성한 행복주택 '숲에리움'은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했다.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근 지역 상권의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상생모델을 제시한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같은 방식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정희 자치행정과장은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은 구청은 주민 공간을 확보하고, 정부와 SH공사는 주거난 해결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며 "이번 사업이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지난 27일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희서 의원을 비롯해 구의원 16명 전원이 함께 발의했으며, 결의안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핵발전소 해체 과정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로구의회가 지난달 27일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로구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며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구의원 모두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단호히 맞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솔선

출석공무원 최소화, 회기 중 식사도 도시락으로 대체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의회 방역을 더욱 강화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달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는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를 위한 필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참석하지 않도록 했으며, 모든 출입자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는 물론, 회의장 내에는 개인별 투명 가림막과 마이크 위생 커버를 설치해 비말 전파를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코로나19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로구의회가 정례회 기간중 의원들은 밀접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점심 식사를 지역식당에 도시락을 주문해 의회청사 안에서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왼쪽 박동웅 의장과 곽윤희 부의장〉

또한, 정례회 기간 중 의원들은 밀접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점심 식사를 지역식당에 도시락을 주문해 의회청사 안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등 모임, 회식 등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박동웅 의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들고 다니는 행정전화 '구로톡' 서비스

"직원 개인정보 보호" 전용앱 개발
개인 스마트폰이 '행정전화' 역할

"스마트폰이 들고 다니는 행정전화로 변신!"

구로구가 직원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무실 행정전화를 출장, 외근 등 업무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로톡(GURO Talk)' 서비스를 선보였다.

구로구는 "개인 전화번호 누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의 스마트폰으로 행정전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용앱 '구로톡'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문업체에 의뢰해 앱을 개발하고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용앱인 '구로톡'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실행시키면 구청 행정전화 번호로 전화 걸기와 받기가 가능해진다. 직원들은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며, 민원인에게는 행정번호가 표출돼 신뢰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외부에서 전화 응대를 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도 가능해졌다.

'구로톡' 앱은 행정전화 외에도 직원 간 메신저, 전화번호 검색 기능 등도 갖춰 직원끼리의 의사소통도 수월해졌다.

박대순 홍보전산과장은 "최근 구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59명 중 75%가 '구로톡' 앱이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했다"며 "직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만수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 유희상 발 행 인 : 김유권
주간 : 한만수 편집국장 : 채홍길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구 독 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독단적·일방적 재단 운영 어떻게 보나?”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6일까지 20일간 제298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본지는 지난 2일 제4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들이 이성 구청장을 상대로 시책분야 구정질문과 함께 답변을 들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를 간추린 내용이다.

구로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시책 질의-답변(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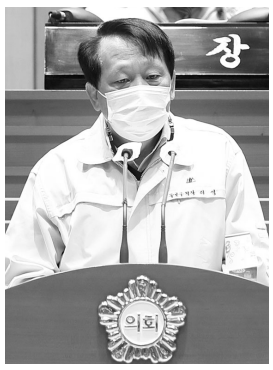
●조미향 의원 질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사례별 공유방안에 대해

조미향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전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로구 코로나19 발생 현황 ▲구로구 방역체계와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현장에서 직원들 애로사항, 우수사례 소개 및 직원격려 방안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코로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례전파 방법 ▲코로나19 초기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대응 및 해결을 담아 기록으로 남길 구로구 ‘코로나19백서’ 발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구청장 답변

비상대책본부 근무자 지원 ‘코로나19 백서’ 발간 검토



조미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관련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코로나 19 발생현황과 관련한 전반사항과 방역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부터 답변 드리면, 올해 초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여성이 발열 증상을 보이며, 국내 첫 번째 코로나 19 환자로 등록된 이후, 약 11개월이 흐른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약 6,358만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었고, 약 147만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12월 1일 기준으로 3만 4,652명이 확진됐으며, 526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서울지역은 확진자 수가 8,96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누적 확진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12월 1일 기준 27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5번째 순위입니다. (1명 사망, 97세 여성,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모친)

지난 11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응 하면서 우리구도 크고, 작은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3월 9일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가 가장 크게 발생했던 사례로 2020년 8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였습니다.

콜센터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구는 코리아빌딩 입구에 현장 선별진료소를 즉시 설치하여,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과 입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코리아빌딩의 전면폐쇄를 결정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방역 조치를 취해 수도권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콜센터 집단감염’이라는 사태를 겪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의 감염 취약성과 고위험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었고, 우리구의 선제적인 대응조치와 중앙부처-서울시-구로구가 합동상황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이, 이후 서울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지침)』으로 전파되는 모범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에서 우리구는 신도 5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등 대규모 종교시설의 예배·법회가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종교인 긴급간담회를 시작으로 종교계의 예배·집회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러한 성과의 일환으로 우리구 대형교회 중 하나인 만민중앙교회가 3월 6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원 등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점검과 관련해서도, 우리구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관내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관내 요양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책과 우리구의 우수 대응사례에 대한 공유 및 백서발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로구의 코로나 비상대책본부에는 10개반 102명이 근무중이며, 구청의 전 부서도 자가격리자 관리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만민중앙교회 같은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와 구로구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감염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사례 등을 잘 정리하여, 향후 이러한 감염병 발생시 타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로구 코로나19 백서』를 제작·배포하고, e-book 등의 형태로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숙자 의원 질의

영등포구 도림동 연상하는 도림천역 명칭 변경 검토를

본 의원은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도림천역,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이성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림천은 구로, 영등포, 관악, 동작에 이르는 광범위한 하천으로 ‘도림천역’이라는 역명은 구로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역명을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어울리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 구청장 답변

서울철도공사서 운영-관리 지명위 승인, 서울시서 고시

최숙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림천역 명칭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은 서울철도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역명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승인과 서울시 고시를 통해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역명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의 연관성, 지역실정에 부합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재의 신도림동에 위치한 ‘도림천역’의 역명은 이런 측면에서 난해한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지금까지 불려온 역명에 대한 시민편의(대중성)와 혼란초래 예상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 발생으로 역명의 개정을 엄격히 제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신도림동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새로운 역명을 제안해 주신다면, 서울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에 의거하여 도림천역의 역명개정을 서울시에 요청 하겠습니다.

○박종여 의원 질의

부적절한 조직 개편 등 문화재단 ‘잡음’ 잇따라

본 의원은 구로구 문화재단의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이성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부임한 구로구 문화재단 새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조직 개편 등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문화재단 운영으로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이사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구청장 답변

재단대표에 고유 권한 부여 향후 관리·감독 만전 기할 것

박종여 의원님이 질의하신 ‘독단적인 구로문화재단 운영 관련’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구로문화재단의 질적 도약과 지역문화 콘텐츠 플랫폼 강화 등 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지난해 8월 선임되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는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사무위임규정 제5조 사무배분의 기준 중 대표이사의 결재사항으로 △정책 등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집행, △인사·재무회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제도적 범위 내 자율권 부여를 원칙으로 구로문화재단이 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재단운영 세부계획 수립·집행, 인사권 등의 재단 대표이사 고유권한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여 소신껏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향후 문화재단 업무추진 시 주관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11월 9일 구로문화재단 내에 구로문화재단분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앞으로 노사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는 구로문화재단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고 구로구의 문화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면으로 계속〉

“관리부서 없는 ‘전동킥보드’ 주민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구로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시책 질의-답변(요지)

〈3면에 이어 계속〉

●김희서 의원 질의

오류동, 천왕동 고교부지 지켜달라 항동지역 수영장, 체육시설 확충을

본 의원의 오늘 시책질의는 오류동, 천왕동 지역 고등학교 부지 지키기와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질의와 항동지역 수영장, 체육시설, 청소년 공간 확충 관련 진행사항과 계획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곳 천왕지구, 항동지구 둘 합쳐 1만세대의 대규모 택지가 완성되었고, 천왕역 주변 재건축도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너무도 절실한 지역 현안입니다. 이성 구청장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성 구청장 답변

항동중·천왕중 학생수 증가 추세 도시계획시설 존치, 고교 설립 요청

김희서 의원님이 질의한 초중고 공교육 벨트 완성을 위한 오류-천왕-항동지역 고등학교 부지 지키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에 (278,744㎡) 효율적인 개발 및 국민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1,909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본 부지 내 학교용지 3개소 중 하늘숲 유치원과 하늘숲 초등학교는 개교하였으나 ‘고등학교’ 계획 부지가 학령인구 감소 등 학생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건립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8월 4일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위 고등학교 계획부지가 400호의 공동주택 포함 복합화사업 추진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천왕동 및 항동 택지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현대연립주택 재건축사업과 역세권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개량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설립당시 항동초등학교 47학급 1,236명, 항동중학교 30학급 921명으로 수요예측 하였으나, 2023년 이후 예측인원을 초과하여 과밀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 이후에 항동중학교와 천왕중학교의 학생수 증가 추세로, 고등학교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 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화사업 추진을 원천 반대하고, 현재대로 도시계획시설 존치 및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류-천왕-항동지역의 초중고 공교육벨트 완성을 위해 천왕2지구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으며,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경숙 의원 질의

‘길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경각심 갖고 대비를

본 의원은 최근 부쩍 ‘길위의 무법자’로 뉴스마다 등장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비와 관련된 법제도는 현재 공백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이 증가하고, 이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관리부서 없는 전동킥보드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성 구청장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성 구청장 답변

해당기관에 규정 정비 건의 협약서 미 준수시 견인 조치

노경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보급과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보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보행자 보호의무와 통행방법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공유 킥보드 주차를 위한 전용 주차시설이 없어 보도상에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고, 그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예견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인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며, 세부적인 단속 규정 등이 미비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등 경찰서 소관 단속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요건 강화’ 등 제도적 요건을 마련중이며, 11월 30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 15개사, 공공기관 등과 함께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16개 공유PM업체와 ‘퍼스널 모빌리티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협약 체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협약서 미준수시 견인 및 비용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방법, 안전모 착용 등 운전자 준수사항,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구로경찰서와 협력하여 교통법규 위반 적발시 즉시 단속 및 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경고·계도 하는 등 현장 안전활동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유PM업체가 ‘퍼스널 모빌리티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위반시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관련규정 정비 등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철역사 주변 등 주요 공공장소에 공유업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유 킥보드 전용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자전거 보관대에 주차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차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질의

안양천 체육·녹지시설 예산낭비 많아 개선을

이명숙 의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안양천에 올해 장마철 침수로 안양천은 토사가 유실되고 초화도 많이 훼손되어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안양천의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힐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으로서의 안양천의 탈바꿈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예산낭비와 편중된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천의 체육시설과 녹지시설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구청장 답변

하천둔치 침수 철저 대비 체육시설 주민편의에 최선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녹지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고척 스카이돔 활성화, 고척교 교량 확장, 징검다리 개통 등 하천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외래 식물로 뒤덮인 하천녹지에 대한 정비 필요성과 주민요청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8년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업 ‘하천변 수목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에 시비 4억원으로 그늘목 식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천 둔치 내 최초로 키 큰나무를 식재한 사업으로 수리계산용역, 하천점용허가 등을 득한 후 안양천 내에 양버들 338주와 화살나무 2,000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2018년에 시비 7억원으로 구일역 일대 유휴부지에 8,500㎡ 규모로 왕꽃창포를 비롯한 다양한 계절초화를 식재하여 안양천 명소화 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시비 8억 5천만원으로 위해식물로 뒤덮인 안양천 좌안 제방사면에 하천 식생에 맞는 다채로운 초화류를 식재한 안양천 생태복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시비 5억원과 구비 5억원을 투입하여 오금교에서 신정교 구간의 제방 하단부에 생태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제방 상단에 장미 식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척교부터 신정교에 이르는 2km 구간에 장미식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설계단계부터 침수에 강한 식물을 도입하고 신속한 배수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장미원은 지반을 높여 식재 하는 등 여름철 하천둔치 침수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그러한 대비로 올해 기상관측 이래 53일의 최장 장마기간 동안 둔치 침수가 4회 발생하였으나, 침수로 인한 식물피해는 초화 약 7,000본으로 전체 식재한 35만본의 2%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피해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천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구일역부터 신정교까지 풋살장, 농구장, 축구장등 9개 종목 20개소, 야외 운동기구는 11개소에 9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고척교 하부 좌완의 고척스카이돔 인근에 파크골프장 18홀과 농구장, 풋살장 겸용 다목적구장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아디다스 회사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일환으로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구일역 하부에 풋살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개보수하여 구비 2억을 절감하였고, 안양천 C축구장과 어린이 야구연습장 조성 사업에는 15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양천내 유일한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3억원으로 인조잔디 축구장 조명설치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한 체육시설 주변에 주민편의를 위한 음수대 및 야외벤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안양천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김유권·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김희서 의원 '우수 구의원' 수상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지부 설문조사 선정

박동웅 의장 3회 연속 김희서 의원 2회 수상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과 김희서 의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지부로부터 '우수 구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지부에서는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의 성숙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시각에서 귀감이 되는 우수 구의원을 매년 2명씩 선정하여 시상해왔으며, 박동웅 의장과 김희서 의원은 각각 3선과 재선의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책 전문성 및 청렴성 겸비, 직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구청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수구의원 선정은 2017년, 2018년, 2020년 총 3회 실시되었으며, 박동웅 의장은 3회 연속 수상, 김희서 의원은 2018년, 2020년 2회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왼쪽)과 김희서 의원(오른쪽)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지부로부터 '우수 구의원'에 선정됐다.

김희서 의원은 "상을 주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늘 격려해 주신 구민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무원들과 구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동웅 의장은 "공무원들이 주신 상이라 의미가 더 크고 기쁘다"며 "공무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나아가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에,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또, 한 해를 보내면서 (上)

지난해에도 올해 못지 않게 전국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다. 그래도 12월이 되면 직장이나, 동호인, 가까운 지인들끼리 송년회 일정을 짜거나, 젊은 층들은 새해맞이 여행 계획을 짜는 등 그런대로 바쁘게 12월을 보냈다.

올해는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고, 마음까지 얼어붙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12월이 왔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덤하게 12월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한 해를 보내는 종착역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희망 보다는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계획이나, 어떤 일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 12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세 상 은 상 대 성 이다. 12월을 보 낸 다 는 것은, 1월을 맞이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 진다. 새해를 맞는 12월이라고 생각하면 12월을 보내는 생각이 정반대로 바뀌게 된다. 보낸다고 생각하면 후회와 반성이 일어나지만, 1월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희망과 계획을 짜는 12월이 될 것이다.

12월을 보내느냐, 1월을 맞이하느냐는 순전히 각자 판단의 몫이다. 지난 호에 '흑백논리의 오류'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쪽이 정답이고, 어느 쪽은 오답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본지 회장〉

'코로나19 속에서도 이웃사랑은 풍년'

구로구, 사랑의 김장김치 '110톤' 저소득층에 전달

민간기업·복지재단·지역사회와 힘 모아 1만1,338박스 지원

코로나19 속에서도 구로구의 김장나눔은 '풍년'이다.

구로구가 민간기업, 복지재단, 지역사회와 함께 마련한 사랑의 김장김치 110톤을 관내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구로구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손길이 늘어나 2018년 8,062박스, 지난해 8,671박스에 이어 올해는 10kg 1만1,338박스의 김장김치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김장행사 대신 김치를 구입해 기부했다.

지난달 13일 구 자원봉사협력단원들의 272박스를 시작으로 19일 이마트 구로점·신도림점이 150박스, 20일 국민일보·농협중앙회가 260박스, 23일 구 새마을부녀회가 530박스, 24일 서울광역푸드뱅크마켓센터가 70박스, 26일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이 2,250박스를 구에 기부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들도 후원, 김장행사 등을 통해 확보한 김치 2,544박스로 이웃 사랑을 전한다.

엠엔테크(주)(140박스), 오류동장로교회(140박스), 새마을금고개봉본점(163박스), 구로희망복지재단·오류2동새마을금고·오류동남부교회(170박스), 즐겁고행복한교회(30박스), 각 동 자원봉사협력단 등은 총 2,247박스의 김치를 마련해 각 동 주민센터로 기증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구로구의 김장나눔은 '풍년'이다. 구로구가 민간기업, 복지재단, 지역사회와 함께 마련한 사랑의 김장김치 110톤을 관내 저소득층에게 지원했다.〈사진은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이 김장김치 2,250박스를 구로구에 기부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글로벌금융판매(315박스), 정재면내과(300박스), KT&G복지재단(1,300박스), 넥스젠파트너스그룹(600박스), 함께하는 사랑밭(500박스) 등이 김치 나눔에 동참한다.

이동섭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재료비 상승 등으로 김치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은 김장김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해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치매관리의 '산실' 진정한 노인복지실천의 '요람'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전 직원 104명 〈실버인지 전문가 1급 자격증〉 취득

대한치매협회서도 감사패 전달

고척동 소재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대표 공태균)은 지난 2020년 10월21일부터 5주간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급여제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한치매협회와 협력하여 '치매관리사 양성 자격증 반'을 개설하여 운용했다.

이번 '치매관리사 양성 자격증 반'은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치매 관련 전문가의 소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구로구청에서 매년 주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해 진행하게 됐으며, 고령화 사회 속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치매노인의 관리를 전문성 있게 관리 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기간 중 한 명의 낙오도 없이 5주간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원이 합격하여 '실버인지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편 대한치매협회에서는 이번 교육기간 중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어려운 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낙오 없이 104명이 모두 자격증을 취득한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치매노인관리에 더욱 정성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치매노인 전문 관리요양원으로서 거듭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버 인지 전문가 1급 자격과정 수료 기념 감사패 전달식〈왼쪽 조미연 가치더함 미래연구소 대표, 오른쪽 공태균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대표〉

구로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2020년도 실버 인지 전문가 1급 양성교육 모습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한 104명의 직원들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리요령을 체득함으로써 현재 입원중인 환자의 70% 이상이 고령의 치매환자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치매노인관리 전문요양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것을 다짐했다.

공태균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면회단절 등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져 소외되고 건강상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감기예방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배즙과 도라지즙을 공급함은 물론 종합 비타민과 갈비탕, 뼈다귀 감자탕, 꼬막비빔밥, 등 체력관리를 위한 계절에 맞는 제철음식을 포함하여 특별영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자식이 날 버리고 갔어" 생각에 요양원 노인들 '건강' 악화

코로나19로 요양원 '면회 불가'에 자식들 불효로 '시름'

가족들 "건강 상태 등 수시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비접촉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지만 '보호자 안심전화' 등은 권고사항에 그치는데다 한시적으로 운영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했을 때 건강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비대면 화상 면회로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요양병원·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의 아들, 딸 등 가족들에게 '불효자'를 만들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 9일 0시부터 연말까지 3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해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애태우고 있다.

구로구 관내에는 요양병원 9개소, 요양원 17개소, 어르신 데이케어가 20개소가 있다. 데이케어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는 인한 입소 어르신들의 면회 불가로 노인들의 우울증 등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비접촉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보호자 안심전화' 등 정부의 방안이 권고사항에 그치는데다 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했을 때 건강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봉동 김지연(여·54세)씨는 노인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기 때문에 면회 금지를 이해했지만 반년 넘게 면회를 못하면서 부모님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치매나 우울증세를 동반한 중증환자"라며 "코로나19를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금방 잊고 자식들이,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갔구나.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구나, 하는 외로움에 하루하루 몸이 더 아파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비어있는 회의실이나 '1인 병동'을 임시 면회소로 만들어서 사전예약제로 면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병원에서 외롭게 버티는 어르신을 생각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박순옥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요양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비대면도 금지되어 발만 동동 구르는 어르신분들이 많다고 한다. 눈만 뜨면 '아들한테 가고 싶다' '아들 딸 자식을 기다리는 그들' 이름을 부르다 지쳐 먼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낙이다"라고 한다. 위로 한들 아들 딸이 되어 줄 수가 없다고 한다.

박씨는 "인간의 몸은 비록 생로병사의 길을 피할 수 없어서 노쇠한 몸으로 살아가야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한 때, 자식들을 키우시면서 나름 왕성하고 잘나가는 시절도 있었고, 국가에 이바지 하셨던 분들이다"며 "과거에 매달려 살아 오던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삶의 한 순간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가 번지기 전까지는 면회도 자유로웠고, 음악에 맞춰 손벽치며 노래하는 노래교실, 그림그리기, 율동, 건강체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나 코로나19가 번지고 나서는 비대면으로 면회가 사절되고 하루 3끼 식사와 간식만 바라보는게 하루의 일과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시달니고 소화 장애를 이르키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구로동 임모(주부58세)씨는 "80세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이 22.4%라는데,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불효를 범할까 걱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다시 번지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요양원·요양병원 등에 부모를 맡긴 자식들이 이들 시설의 면회 제한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모친을 요양원에 입원시킨 민모씨(46·여·가리봉동)도 "집에서 요양원까지 거리가 30분도 안걸리는데 어머니를 못본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잘 모르는 어머니가 혹시나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조모씨(52·여·구로5동)는 "어머니가 하루종일 내 이름만 부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방호복을 입고라도 어머니를 한번 만나 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격리가 길어지면서 직원들의 업무 피로감은 물론 입소자들의 심리적 우울감도 높아지고 있어 심리 방역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구에 위치한 지체장애인생활시설 '브니엘의 집'은 외부인 출입 금지가 지난 3월 초부터 자원봉사자와 입소자 가족 면회를 일체 금지한 상태다.

박상준 브니엘의 집 원장은 "구로동 일대에서 집단 간염 시설이 발표 될 때마다 가슴을 쓸어 내린다"고 한다. 박 원장에 따르면 현재 이 시설 직원들은 외부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집과 시설만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중이다. 외부 활동을 통해 신종코로나에 감염된 채 출근을 할 경우 시설 내부에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설 청소와 배식 같은 업무의 경우 그동안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줘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외부인 출입을 막다보니 현재는 전부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9일 오전 현재 구로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333명이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상위 5% S등급 획득…2년연속 서울시1등

구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 1등도 차지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등 내부통제활동과 운영기반 항목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구로구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상위 5% 이내 기관에만 주어지는 S등급을 획득했다. 내부통제 평가시스템에 따르면 2년 연속 서울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그동안 구로구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부서별 일정 목표 달성 시 인증을 해주는 '청렴인증제', 행정 처분 전 실시하는 청문 절차에 옴부즈맨을 참석시키는 '옴부즈맨 청문 입회제도'를 도입했다. 청렴 문자, 모바일설문, 청렴해피콜 등 촘촘한 리콜 제도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구청장까지 감사가 가능한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고, 접대 문화 근절을 위한 청렴식권제를 만들어 공사 관리·감독, 계약 분야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로구는 '2019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종은 감사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구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 관내 전통시장 더 좋아졌다

구로시장 아케이드 연장·고척근린시장 저잣거리 조성

구로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구로시장 아케이드 연장사업〈왼쪽〉과 고척근린시장 저잣거리 조성사업〈오른쪽〉을 최근 완료했다.

구로시장과 고척근린시장이 더 좋아졌다.

구로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해온 구로시장 아케이드 연장사업, 고척근린시장 저잣거리 조성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구로시장 아케이드 연장 사업은 구로동 736-1 일대에 총 면적 1,150㎡(길이 59m, 폭 15m) 규모로 진행됐다. 구로구는 약 13억원을 투입해 올해 4월 조성공사에 들어가 지난달 마무리했다. 2016년 5월 구로동로 22번길 주변으로 2,070㎡(길이 300m, 폭 6.9m)의 아케이드를 설치한 후 두 번째 사업이다.

구로시장은 아케이드 추가 조성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장을 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됐다.

구로구는 아케이드 공사와 더불어 천장 조명 설치, 소방도로 확보, 바닥 재포장, 한전주·통신주 정비도 실시했다.

구로구는 고척근린시장 전통저잣거리(고척로 32길 일대)도 조성했다.

연면적 6,014㎡에 80여개 점포가 입점해 있는 고척근린시장은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돼 전통저잣거리 조성을 추진해 왔다. 시장 내외부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먹거리 상품 개발, 상인 교육, 동아리 활동 등을 펼쳤다.

시설 정비를 위해 지난해 1차 사업으로 점포 상단에 전통기와와 처마를 설치했다. 기존의 돌출간판은 청사초롱 모양으로 통일하고 점포 매대 하단에 전통문양의 디자인판을 공통으로 설치했다. 통로 기둥에도 전통 색감의 디자인을 씌우고 이동무대도 제작했다.

사업 2년차인 올해는 전통 상점과 어울리는 외부기반 조성에 힘을 쏟았다. 고객이 많이 드나드는 정문 2곳과 북문 입구에 전통문양 게이트를 조성하고 시장 안내를 위한 전광판을 설치했다. 북문 입구 주변에는 15여m 길이의 비가림 시설도 설치했다.

고척근린시장은 전통저잣거리 조성과 함께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온라인 판매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관내 확진자 폭증세… 300명도 훌쩍 넘었다

손보사 관련 12명 등 일주일새 50여명 급증… 9일 현재 333명

버스기사도 확진 09번 한때 운행중단… 서울시 확진자 1만명 돌파

방역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자 기준을 대폭 확대 하기로 했다.〈사진은 구로구 선별진료소〉

코로나19 확진자가 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에도 불구 서울시 전체 1만명을 돌파하고 구로구 관내 확진자도 300명을 넘는 등 폭증세가 심상치 않다.

9일 현재 구로관내 확진자는 하루에 12명이 집단발생하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 50여명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333명으로 급증했다. 이날 현재 관내 90대 1명이 사망하고 239명이 완치 퇴원, 93명이 치료중이다. 서울시 전체 누적 확진자도 1만932명으로 집계됐다

구로관내 D손해보험사와 관련에서도 종사자 12명이 확진됐다. 구로구민은 2명이다.

관내 332번 확진자(신도림동)는 8일 오전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저녁에 양성 판명됐다. 331번 확진자(수궁동)는 7일 영등포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8일 양성 확진됐다.

330번 확진자(구로5동)는 318번 확진자(12.7)의 가족으로 7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8일 확진됐다. 329번 확진자(개봉1동)는 248번 확진자(11.25)의 가족으로 지난달 25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6일부터 자가격리 중 7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고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328번 확진자(고척1동)는 증상 발현에 따라 7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8일 양성 확진됐다. 327번 확진자(구로5동)는 의심증상으로 7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8일 확진됐다.

320번 확진자(구로5동)는 7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저녁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관내 소재 서북교통 구로09번 마을버스 기사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마을버스 구로09번 버스 13대 운행을 7일 저녁 9시부터 일시 중단했다. 8일 해당 운수회사를 방문해 직원 32명 전수 검사를 실시, 9일 오전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9일 오후 1시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9일 현재 구로구 관내 누적 확진자는 333명으로 치료중 93명, 완치자 239명, 사망 1명 이며 자가격리자는 국내밀접접촉자 323명, 해외입국자 267명 등 모두 590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부천시 쿠팡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타시군구 접촉 159명, 해외 입국 5명, 기타 8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9일 현재 모두 1만932명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사망자는 105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서구가 제일많은 756명 ▲송파구가 726명으로 2개구가 700명을 넘어섰고 ▲관악구 652명 ▲강남구 616명으로 2개구가 600명을 넘어섰다 ▲서초구 580명 ▲노원구 543명 ▲성북구 522명 ▲동작구 501명으로 4개구가 500명을 넘어섰고 ▲은평구 459명 ▲중랑구 416명으로 2개구가 400명을 넘어섰다. 또 ▲양천구 392명 ▲동대문구 379명 ▲도봉구 373명 ▲영등포구 372명 ▲마포구 372명 ▲강동구 344명 ▲구로구 333명 ▲서대문구 317명으로 8개구가 300명을 넘어섰다. ▲용산구 284명 ▲성동구 261명 ▲광진구 247명 ▲강북구 235명으로 4개구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어 ▲종로구 155명 ▲중구 153명 ▲금천구 149명으로 3개구가 여전히 100명선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코로나로 외출 제한 '노인 고독死' 우려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경로당 등 문닫아

구로구의 독거노인 박모씨(81)는 "요즘에는 아침에 눈을 뜨기가 겁난다"고 했다. 지난 9월 초까지 경로당에 가는 게 하루 주요 일과였던 박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개월 가까이 거의 집에만 머물고 있다.

"경로당에서 시시콜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장기를 두던 게 꿈만 같다"며 "사람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립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주요 복지시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에게 경로당은 생활터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갈 데가 없어졌다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는 경로당 출입이 제한되면 더 쓸쓸하고 외로운 겨울나기를 해야 한다.

구로구는 18만여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38.73%인 7만여 가구다. 조선족이 몰려 사는 구로 3동이 7천8백가구, 가리봉동이 4천가구다. 코로나로 행동 반경이 제한되면서 1인 가구 중에 빈곤층은 고독사를 할 위험이 크다.

고독사의 고 위험군은 고령사회 노인이 아닌 누구나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풍조가 되어 버렸다. 이미 빨간 신호등은 켜진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경계하고 노력하여 이러한 사회가 더는 존재하지 않도록 의식전환과 노력이 필요한 오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로구는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스마트 돌봄플러그는 대상자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조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는 기기다. 전기콘센트에 멀티탭처럼 꽂은 뒤 TV 등 가전제품의 전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구에서 선정한 각 세대에 설치된 돌봄플러그는 대상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고위험군 24시간, 위험군 36시간, 일반군 50시간으로 알림주기가 설정돼 있고, 해당 시간 동안 측정값에 변화가 없으면 복지플래너에게 위험알림 문자가 전송된다. 위험알림을 받은 복지플래너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한만수 기자〉

헬멧 안 쓰고 킥보드탄 30대 남성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구로경찰서, 30대 과실치사 입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했다.

구로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3분쯤 구로구 남부순환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길을 건너던 B씨(30대·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신호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2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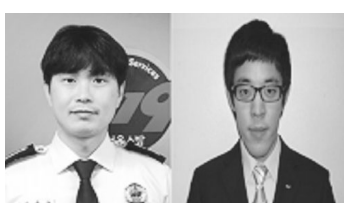
사망자 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 △2019년 8명, 부상자 수도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자전거용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야 한다.

〈채홍길 기자〉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구로소방서 김윤수·정성국 소방관 수상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면 취소되고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소방청 청장상 등 총 11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모든 기업과 단체, 개인 주소지 관할 소방서로 상장과 상패가 전달됐다. 구로소방서 김윤수, 정성국 소방관은 소방산업기술원장상을 수상했다.



김윤수 소방관 정성국 소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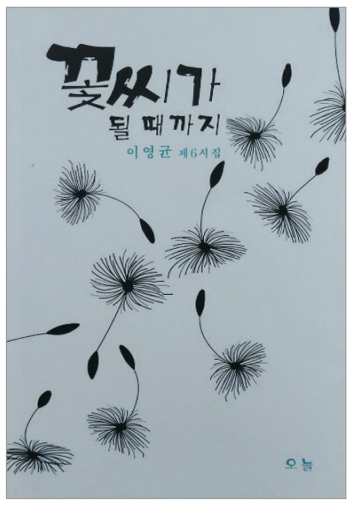
김윤수 소방관은 홍보교육팀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방안전 교육과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딱딱하고 지루한 심폐소생술 사용방법을 노래로 만들어 심폐소생술의 의미는 알지만 방법을 잘 모르거나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상을 받은 김윤수.정성국 소방관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주신 기업과 관공서 담당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이영균 시인 제6시집 '꽃씨가 될 때까지' 발간

제1부 '달, 갯벌에 빠지다' 등 5부에 걸쳐 52편 시 수록



이영균 시인의 제6시집 '꽃씨가 될 때까지'가 '도서출판 오늘'에서 발행됐다.

시집 제1부 달, 갯벌에 빠지다에는 소통의 역사 등 10편, 제2부 떼무리. 소무의도 에는 처음처럼 등 11편, 제3부 강화도의 봄 에는 걸어서 하늘까지 등 10편, 제4부 그녀의 자맥질 에는 봄나래 등 10편, 제5부 이작도에는 꽁치 한 마리 김밥 외 11편 등 모두 52편의 주옥같은 시가 수록 되었다.

이영균시인은 "늪과 펄을 오가던 철새 떼를 보면서 자아의 푸르론 날들의 흔적을 지면에 옮겨 보았다"고 한다.

마경덕 시인은 해설에서 "대상을 앞에 두고 한발 물러서서 찬찬히 바라본다. 서두르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다. 시의 완급을 조절하며 치밀하게 드려다 본다. 이처럼 삶에 대한 성찰적 자세가 자신만의 독특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간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오늘' 정가 12,000원.

〈김유권 기자〉

문학광장 '한국문학 대표詩選 8'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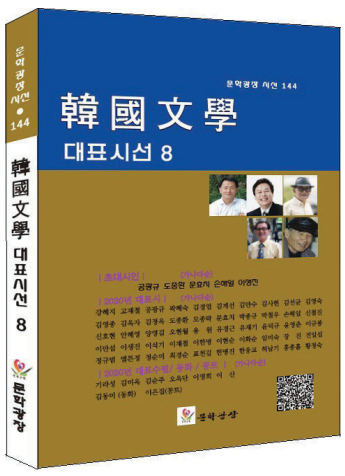
도종환·문효치 시인 등 문단 중견인 작품 수록

구로지역 문예지 도서출판사 격월간 문학광장(발행인 김옥자)는 지난 12월1일 '한국문학 대표시선 8'을 발간했다.

올해로 8번째 출간된 '한국문학 대표시선 8'에는 한국문단에서 중견시인으로 활동을 하는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 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인 문효치 시인, 활발한 시작 활동을 하고 있는 공광규 시인과, 손해일, 이생진 시인의 작품 등이 실려 있다.

또 문학광장을 통해 등단한 강혜지, 곽혜숙, 고재철, 김만수, 김정옥, 김옥자, 김선균, 오현월, 윤덕규, 이재철, 엘튼정, 정규범, 정순미, 모종락, 표천길, 최경순, 한병진, 허남기 시인 등 50인이 공동 참여를 했다.

또한 '2020년 대표 수필'로 기



라성, 김미옥, 김순주, 오옥단, 이영희, 이산 등 6인이 함께했다.

작품집 발간에 맞춰 김옥자 발행인은 "문학광장이 구로구에 둥지를 틀고 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이 되는 순수문예지다. 한국문학 대표시선은 문학광장의 이름을 걸고 해마다 출간을 하는 작품집이어서 회원들의 엄선된 작품만 수록했다"고 말했다.

편집인 표천길 시인은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읽어봐야 할 정도로 옥구슬로 멋지게 꿰어 낸 작품들만 실려있다고 자부한다"며 출간 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초대시

박건호 공원에서

시인 최 영 옥

토우(土偶)의 푸른 뜨락,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다

선남선녀 불가에 둥글게 둘러앉아
찬 손 녹이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우렁우렁 번지는 바알간 불길 속에서
가난한 청년 시인 흐뭇하게 웃고 있다
배부른 산에서 배불리 먹지 못해 늘 배가 고팠던 그는
대처로 나가 詩 대신 노래로 먹고 살았다
무수한 입속에서 튀어나온 검은 말들
풀빛 영혼의 노래, 느름돌이 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깊숙이 뿌리 내린 땅의 노래가 기다란 촉수 하늘로 뻗어
무쇳덩어리처럼 굳어진 붉은 상처와 까맣게 탄 마음마저도
모닥불 화인으로 봉인 할 수 있음을

가슴 아린 지난 날, 아슴아슴 잠드는 밤
그는 홀로 머나먼 곳 어느별에 들어
뤼브롱 산언덕에 피어나는 어린 햇별들을 세고 있을까

- 한국문인협회 강원지회 회원
- '강원문학' 신인문학상 수상
- 시집 '고요의 뒤꿈치를 깨물다' 있음

*12월 9일은 박건호 기일입니다.

'온라인 구로문화원' 29일까지 연장 운영

바른 글씨, 장고춤, 여행영어 등 6개 강좌

구로구가 '온라인 구로문화원'을 이달 2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주민들의 취미생활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달 '온라인 구로문화원'을 마련해 운영했다. 당초 11월 한 달 운영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호응 속에 한 달 더 연장했다.

연장된 '온라인 구로문화원'은 창의 영어 미술, 바른 글씨, 장고춤, 어반 스케치, 단소, 여행영어 등 6개 강좌로 구성된다. 유튜브 '구로G페스티벌' 채널을 통해 강좌별로 4~20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며 지난 회차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수강을 원하는 이는 별도 수강 신청 없이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면 된다.

강의 일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나 구로문화원 블로그(blog.naver.com/gurocc08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홍길 기자〉

구로희망복지재단 Guro hope welfare foundation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신이 희망입니다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제적 어려운 이웃을 지원합니다.

지원문의 : 구로희망복지재단 02)867-1695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774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